

제14편 - 제3신앙촌시대(제1부)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 (56회)

- 제13편
 덕소신앙촌시대(제1부)
 三. 144,000의 왕의 수
- 제14편
 제3신앙촌 시대(제1부)
 一. 제3신앙촌인 기장(機張)신앙촌
 1) 1970년대의 한국의 상황
 2) 제3신앙촌의 건설
- 二. 제3신앙촌은 완성자 구세주의 출현을 상징함
 1) '셋째올타리에 들어가면 '유리집'을 짓고 산다
 2) 셋째문을 들어가면 황금종이 울리는 곳이다

제3신앙촌시대(제1부)

一. 제3 신앙촌

- 1) 1970년대 한국의 상황
- 2) 제3신앙촌의 건설

감람나무 원체인 박태선 영모님의 사명이 두 분의 가치를 회복시켜 승리하신 하나님으로 키워 세우시는 것인데 제 2신앙촌의 건설은 해외이긴자를 찾아 성공리에 회복시켰다는 것을 뜻한다고 앞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영모님의 제 3신앙촌 건설은 두 가지 중 마지막으로 아담이긴자의 회복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아담이긴자는 '삼신일체일인출' 되는 구세주를 출현하시는 분을 말하는 것이다. 성경에 "처음 사람 아담은 산 영혼이 되었다 하였으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신이 되었다 하였으니(고전15:45)"라고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영모님이 회복시키는 마지막 아담이긴자는 인류를 살리는 구세주가 되는 것이다. 영모님의 사명은 이분 구세주를 출현시키기 위한 사명으로 이 분의 영적 어머니로 오신 것이다. 이제 3신앙촌 건설은 마지막 아담 구세주의 출현 시점이 가까워

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경남 양산군 기장읍 죽성리 770번지 일대 약 240만 평의 넓은 장소에 제 3신앙촌 건설이 1970년도부터 시작되었다. 영모님은 덕소신앙촌에서 매일같이 항공편으로 기장신앙촌 건설 현장까지 출퇴근을 하시면서 직접 공사를 진두 지휘하셨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수출을 제 1의 과제로 설정하고 수출만이 살 길이라고 하면서 수출을 독려하고 있을 때이다. 영모님은 이 곳에 수출을 위한 대단위 공장을 건설하신 것이다. 제일 먼저 시온합성섬유공업주식회사를 설립하셨다. 섬유공장은 '폴리에스테르' 원사를 뽑는 것에서 시작을 하여 나염을 하고 원단을 짜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최첨단의 자동화 공장이었다. 신앙인들만으로는 공장을 가동시킬 종업원의 수가 태부족 하여 외부인들을 뽑아 들어 공장을 돌렸다. 믿지 않는 외부인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았다. 처음에는 버스로 출퇴근을 시켰으나 일에 능률이 오르지 않자 신앙촌내에 외부인들의 숙소를 만들어서 유숙하게 하면서 공장을 가동시켰다. 결국 영모님은 믿지 않는 외부 종업원들을 위하여 신앙촌내에 별도 제단을 마련하였다. 제단 이름은 '시온전도관'이다. 약 500명 정도 예배할 수 있는 장소로 공장 건물 내에 만들었다. 여기의 책임관장으로 'K관장'을 세웠다. 외부인 종업원들은 거의 다 시온전도관 예배에 참석을 하였다. 영모님은 이 시온 전도관사람들에게 매우 관심을 두고 사랑을 많이 쏟으셨다. 운동회를 하시면서 꼭 시온전도관 사람들에게 상을 많이 주셨다. 또 이곳 시온전도관을 통하여 처음으로 영모님의 존재를



고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박태선 장로님이 수출산업 동탑훈장을 받고 있다

안 사람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참 신앙인으로 들어와서 기존 신앙인들보다도 더 열심히 헌신하였다.

하루는 영모님이 'K관장'에게 전화를 하셨다. 지금 즉시 시온전도관사람들에게 모두 연락해서 영모님 집무실에 모이게 하라는 말씀이었다. 즉시 각 공장장에게 전화하여 말씀을 전하여 전 공장장이 가동을 중단하고 다 영모님 집무실로 모였다. 오후 4시경이었다. 영모님이 나오셔서 찬송 한 장을 부르시고는 깜짝 놀랄 말씀을 하셨다. "금식기도를 30일씩 14번을 하셨다"는 말씀이다. 어떻게 30일씩 금식기도를 14번씩이나 할 수가 있는가?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었다. 참으로 영모님은 대단한 분이라고들 생각하면서 나왔다. 그렇게 하신 영모님은 그 다음날 새벽 예배시에 전 기장신앙촌 교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그 말씀을 듣고 궁금한 점이 있었

다. 왜냐하면 영모님은 신앙 간증을 많이 하시면서도 그 금식 기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씀이 없다가 3신앙촌에 오시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던 것이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 말씀이 구세주를 증거하는 말씀이었던 것이다. 영모님은 신앙의 초보자들이 시온전도관 사람들을 오래된 신앙촌사람들보다 사랑하셔서 시온전도관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이와 같이 엄청난 새 말씀을 처음 전해주시신 것이다. 이 신앙의 초보자들은 공장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였다. 이들은 기존 신앙인들보다 더 열심히 희생적으로 일을 했던 것이다. 그와 같은 결과 1972년, 1973년 두 번에 걸쳐 수출산업 동탑훈장을 받게 된다. 대한민국 전체에서 받은 동탑이니 굉장한 실적이었다. 이후 기장신앙촌은 날로 발전을 해나갔다. 섬유 공장 외에 시온철강공업주식회사, 한국

특수제강공업주식회사, 시온유지공업주식회사, 한일물산주식회사 외에 간장 화학 양말 담요 제과 등의 약 40여 개의 공장을 만들어 다양한 제품을 생산했다. 그 생산품은 전국의 교인들로 조직된 소비조합원들이 전국적으로 소비시켰다. 이후 제3신앙촌인 기장신앙촌은 날로날로 발전해 나갔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발전은 세계가 놀라는 경제발전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 위에서도 밝힌 바 있지만 서서히 정도령님의 시대가 열리면서 한국은 세계가 부러워하고 잘 사는, 정도령님이 계시는 나라로 알려지게 되는 서막이 열리고 있었던 것이다.

二. 제 3신앙촌은 완성자 출현을 상징

1) 셋째올타리에 들어가면 유리 집을 짓고 산다

영모님은 제 1신앙촌인 소사신앙촌을 건설할 당시부터 신앙촌 건설을 신기해 하는 신도들에게 앞으로 셋째올타리에 들어가게 되면 유리집을 짓고 살게 된다고 하셨다. 이 말을 들은 신도들은 놀라워했다. 사면이 유리로 된 집을 짓고 산다면 사면으로 투명하게 내부가 다 훤히 들여다 보인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기하기도 했지만 매우 걱정도 되었다. 모든 것이 부끄럼뿐인 나라의 주체의식이 사방이 투명하게 가릴 것이 없는 유리집을 짓고 살게 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이다.

그런데 3신앙촌을 건설한 기장신앙촌을 보고 깜짝 놀라고 또 실망을 하였다. 유리집을 지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따라왔으나 막상 셋째 올타리의 모습은 콘크리트로 된 도저히 안을 들여다 볼 수가 없게 공공 가려진 건물 들뿐이었다. 영모님이 거짓 말씀을 하신 것일까? 영모님은 영의 말씀을 하신 것이다. 유리집이란 영의 집인 마음의 집을 말씀하신 것이다. 사면이 투명한 유리로 만들어 어디서나 훤히 들여다 볼 수가 있는 그런 마음의 집이다. 이 집에서는 일점도 탁함이나 먼지 등이 가려지지 않고 투명하게 들여다 볼 수가 있게 된다. 영모님이 셋째올타리에서는 투명한 유리집을 짓고 산다고 하신 것은 완성자 구세주의 몸을 말씀하신 것이다. 셋째올타리는 구세주의 출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구세주의 몸은 흠과 티가 없는 맑고 깨끗한 몸으로 완성된 것을 말하는데 이 구세주의 몸이 유리로 된 집이다. 그분은 투명한 유리라 같은 집으로 이루어지셨으나 죄인들은 그 투명한 유리집을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분은 당신과 타리에 들어가게 되면 유리집을 짓고 살게 된다고 하셨다. 이 말을 들은 신도들은 놀라워했다. 사면이 유리로 된 집을 짓고 산다면 사면으로 투명하게 내부가 다 훤히 들여다 보인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기하기도 했지만 매우 걱정도 되었다. 모든 것이 부끄럼뿐인 나라의 주체의식이 사방이 투명하게 가릴 것이 없는 유리집을 짓고 살게 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이다.

그런데 3신앙촌을 건설한 기장신앙촌을 보고 깜짝 놀라고 또 실망을 하였다. 유리집을 지을 것으로 생각을

격양록 新 해설 제40회

마음에 깨닫고 깨달아 하나님의 본성인 양심을 잃지 않는 자가 되어라

羅馬箴二(二) 라마단이

有罪自戕水火災禍必受
 人人心覺 人人心覺
 後悔不難矣 後悔不難矣

"죄인(罪人)은 '부술수화(戍水火)'이다." 하였는데, 이는 戍水火(술수화)를 짚어지면(戍) 즉 합자하면 戍(戍+水+火)자가 되니 죄인은 멸함을 받는다는 뜻이요, 그러므로 모름지기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라. 그날에 가서 후회가 떠나가지 아니할들 어찌 하리요.

六六-十六 육육-십육

육육(六六)은 6x6=36, 36궁(宮), 십(十)은 십승진인(十勝眞人), 육(六)은 하도낙서(河圖洛書)의 육도(六韜)를 뜻하니, 즉 36궁(宮)의 도시춘(都是春)을 상징하는 6도(翰)의 주인공인 금운(金運)이 출현하는 중천운(中天運)의 시대에는 늙은이도 이팔청춘의 16(十六)세로 회춘하겠네.

※ 36궁의 도시춘: 적선적덕도덕가(積善積德道德家)에 삼십육궁(三十六宮) 봄이 들어 죽은 나무 꽃이 피고, 죽은 나무 잎이 피고, 죽은 나무 열매 열여 재봉춘절(再逢春節) 돌아왔네 무궁무궁당래천지(無窮無窮當來天地) 무궁무궁관음경(無窮無窮觀音經)을 구불결승(口不絕誦)의

위가며 만팔천세(萬八千歲) 놀아보세 - 『만법전(萬法典)』 책아가(採藥歌) 말미에서 ① 36궁 도시춘(복희8괘의 수 1~8의 합, 36궁이 모두 선경)이 중궁에 들어있다. 황극역의 중심에 6이 들어간다는 것은 인간의 중심(自性)에 선경세계가 들어있음을 의미한다. ② 복희8괘를 천역(天易), 문왕8괘를 지역(地易)이라고 한다면 황극역은 인역(人易)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인존시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6수가 들어가야 한다. ③ 황극수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합이 모두 19를 이룬다. 19는 천지 적멸지수로서 복희8괘의 중궁수이다. 이 중 1은 본체수이므로 작용수 18을 음양으로 놓으면 합계 36으로서 이는 정신세계를 나타내며, 36을 음양수로 더하면 72둔(갑수)을 나타낸다.

羅馬一 二十三條

라마일 이십삼조

心覺心覺喪失本心者
 심각심각상실본심자

마음에 깨닫고 깨달아 하나님의 본성(本性)인 양심을 잃지 않는 자가 되어라. 이에 따라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정역과 황극역의 비교

乾(1)	巽(5)	震(4)	坤(2)
兌(2)	坎(6)	震(3)	兌(7)
離(3)	艮(7)	艮(8)	乾(6)
震(4)	坤(8)	坎(1)	
坤(8)	艮(7)	艮(8)	乾(6)
巽(1)	地(7)	離(9)	巽(7)
艮(8)	兌(3)	艮(8)	(6,1)
坎(4)	天(2)	震(6)	坎(3)
乾(10)		乾(10)	

출처: https://blog.naver.com/lbd102/1400469393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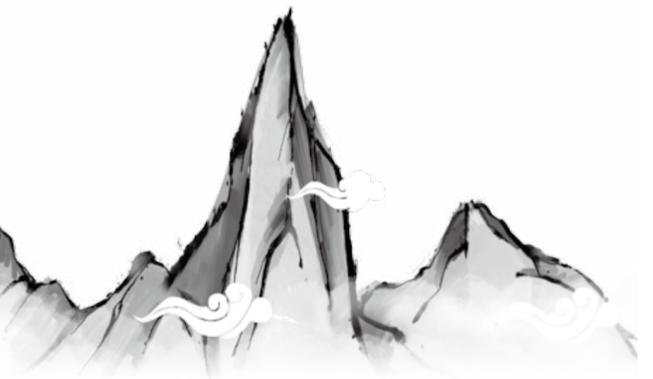
23개 조항은 다음과 같으니라.

一不義일불의 二魂惡이혼악 三貪慾삼탐욕 四惡意사악의 五猜忌오시기 六條人육조인 七粉爭칠분쟁 八詐欺팔사기 九惡毒구악독 十菽屨십숙은 十一誹謗십일비방 十二無神십이무신 十三無天십삼무천 十四凌辱십사능욕 十五驕慢십오교만 十六藉慢십육자만 十七諸惡圖謀십칠제악도모 十八父母拒逆십팔부모거역 十九愚昧십구우매 二十背約십이십배약 二十一無情이십일무정 二十二無慈悲이십이무자비 二十三不義이십삼불의

是忍也시인야

23조항은 1. 불의(不義)를 행하지 말 것 2. 신령한 영혼을 악령으로 만들지 말 것 3. 탐욕(貪慾)하지 말 것 4. 악(惡)한 뜻을 갖지 말 것 5. 시기(猜忌)하지 말 것 6. 끈으로 목매달아 죽지 말 것 7. 분쟁(紛爭)하지 말 것 8. 사기(詐欺)치지 말 것 9. 악독(惡毒)한 마음을 품지 말 것 10. 수군대지 말 것 11. 남을 비방(誹謗)하지 말 것 12. 신(神)이 없다 말 것 13. 하느님이 없다 하지 말 것 14. 남을 업신여기거나 욕(辱)된 말을 하지 말 것 15. 교만(驕慢)하지 말 것 16. 자만(藉慢)하지 말 것 17. 모든 악(惡)을 도모(圖謀)하지 말 것 18.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拒逆)하지 말 것 19. 우매(愚昧)한 짓을 하지 말 것 20. 약속을 위배하지 말 것 21. 무정(無情)하게 대하지 말 것 22. 무자비(無慈悲)하지 말 것 23. 불의(不義)를 행하는 자에게는 참지 말 것.

※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옹다 하느니라 - 로마서 1장 28~32절 참조

차인회심자책문
 不天怒天伐之毒矣
 불면천노천벌지독의

이것(23조항)을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뒤우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책망해야 하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震怒)와 하늘의 혹독한 형벌을 어찌 면할 수 있으리오.* 吉星照

此人悔心自責不然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시는 분께 감사드립니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중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의 공포를 없애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